

올 교원보호공제 약관 개정

전북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따른 피해교원 보호 강화
지원 대상에 사립유치원·사립학교 이사장 포함돼

사립학교도 이동학대 등 법적 분쟁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27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원보호공제 약관 개정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피해교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에 사립유치원 및 사립학교 이사장이 포함된 것이다.

전북교육청은 그동안 이동학대로 교원이 피소당할 시 교원보호공제를 통해 소송비를 지원해왔으나, 기존 약관 지원 대상에 사립학교 이사장은 제외

됐다.

또한 기존에는 수사기관에서 범죄가 인정되면 지원이 불가했으나, 이번엔 약관 개정을 통해 법원의 최종 판결 기준으로 변경해 기소유에 시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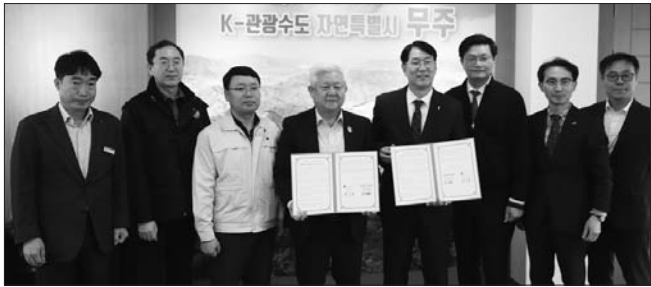
아울러,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물가액에 따라 표준 약관 지원 금액을 변경해 교원의 변호사 수임 시 계약을 원활하게 지원하고, 교관침해 사안이 아닌 교육활동 중 입은 신체 상해 치료비도 50만 원 한도로 추가 지원된다.

김명철 전북교육인권센터장은 “2018

년 교원보호공제 가입 이후 2023년까지 6년간 교원을 지원한 보상은 총 8건, 3,800만 원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보상 영역을 확대하면서 24건, 1억 1500만원을 지원했다”며 “이번 교원보호공제 약관 개정을 통해 교원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교육활동을 더욱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약관은 4월 1일부터 적용,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지원된다.

이와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원보호공제 약관 개정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장은성 기자



27일 무주군청에서 황인홍 무주군수, 우병훈 전주비전대학교 총장, 이근상 산학협력단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사업 공모 및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이 열렸다.

RISE 사업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주비전대, 무주군과 '맞손' ... 지역 특성 반영 콘텐츠 발굴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와 무주군(군수 황인홍)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뜻을 모았다.

이에 따르면 양 기관은 27일 무주군청에서 황인홍 군수, 우병훈 총장, 이근상 산학협력단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사업 공모 및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의 교육 자원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로코노미 거점을 조성하고, 무주군만의 특성을 반영한 로컬 콘텐츠를 발굴·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의 주요 내용은 △로코노미 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 협력 △지하연

계를 통한 사업화 및 산업화 방안 도출 △지역산업과 관광을 결합한 경제 활성화 프로그램 기획 △군-대학 연계 지역 경제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우병훈 총장은 “무주군과 우리 대학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왔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무주군만의 로컬브랜딩 모델을 구축하고, 청년 유입 및 축제 활성화 등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인홍 군수는 “지역 현안 해결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관 간 협력이 중요한 만큼, 전주비전대학교와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무주=전문선 기자



군산부설초등학교는 전문 학습공동체와 민주적 자치공동체를 기반으로 전북미래학교 2년차로서 IB 관심학교 운영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사진=군산부설초등학교 제공)

군산부설초, IB 관심학교 운영 이어나간다

IB 기본 철학·비전 공유, 학생중심의 수업 구현

군산부설초등학교(교장 김신철)는 전문 학습공동체와 민주적 자치공동체를 기반으로 전북미래학교 2년차로서 IB 관심학교 운영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군산부설초는 수업 성

찰과 교육과정 재구성을 위한 교사 연구와 더불어 에듀테크·AI 코스웨어를 활용한 학생중심 맞춤형 학습을 진행한다.

특히 IB(국제바칼로니아)의 기본 철학과 비전을 공유하고 학생중심의 수

업을 구현해 2025학년도에는 IB 후보학교 진입을 목표로 학생들이 우수한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배움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신철 교장은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 공동체를 바탕으로 군산부설초의 학생 모두가 주도적인 학습자가 돼 세계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의 방향을 꾸준히 혁신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사노조 등 도내 교원단체 “유아 안전 보장하라”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지원 조례 제정안에 유치원 제외 규탄”
전북교육청 “현재 입법예고중인 조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창의적 체험활동 일환으로 초중고서 실시 학습 대상으로 설계”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지원 조례 제정안에 유치원이 제외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27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입법 예고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에서 유치원이 제외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조례의 즉각적인 수정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도내 유치원 교사들도 참여해 유아의 안전을 외면한 조례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례안은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현장체험학습 시 보조 인력 배치 기준 및 지원 내용 등을 담고 있으나, 유치원은 법적 정의상 ‘학교’에서 빠져 있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북교사노조는 “유치원생은 초등학교생보다 더 취약하며 체험학습 시 성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대상”이라며 “이들을 조례에서 제외한 것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유아 안전을 배제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

했다.

이어 “전북교육청이 이미 시행 중인 학교안전 관리지원 조례에는 유치원이 포함돼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조례안은 행정적 일관성조차 결여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현재 입법예고 중인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지원 조례는 교육부의 체험학습 안내자료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창의적 체험활동의 일환으로 초·중·고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을 대상으로 설계됐다”며 “유치원의 경우, 유아교육법 및 누리과정을 적용 받고 있으며 교육목적과 활동 특성상 초·중·고교와 운영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치원 누리과정 특성에 맞춘 별도의 조례 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 교육부에서는 구체적인 지침이나 안내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향후, 이를 위한 별도의 TF를 구성해 적용 기준과 방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

한편,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치원만 빠진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지원 조례를 즉각 수정하라고 언급했다.

오준영 회장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교육감 시?도 조례에 따라 보조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유치원을 보조 인력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면서 “지금이라도 현장체험학습 보조 인력 지원 조례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전교조 전북지부는 지난 26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3월 21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정작 이 조례의 지원 대상에는 유치원이 빠져있다는 성명을 냈다.

이날 성명을 통해 전교조는 “이 조례안을 만든 상위법인 학교안전법에는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해 유치원까지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정되는 조례에 유치원을 배제한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은성 기자

‘늘봄 학생 귀가 걱정 끝’

전북교육청, 내달부터 ‘늘봄지킴이’ 운영
전주 40명, 군산·익산 20명씩 투입키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늘봄지킴이 사업을 새롭게 추진키로 했다.

27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4월부터 12월까지 전주, 군산, 익산 지역 초등학교 중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늘봄지킴이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노인 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늘봄학교 참여 학생의 안전한 귀가 지원과 이를 통한 늘봄학교 안전사고 예방 체계 구축이 목적이다.

이 사업은 인계지점 대면 인계와 가정 인계 등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먼저, 인계지점 대면 인계 유형은 자원봉사자가 늘봄교실에서 학생을 데리고 보호자가 기다리는 지정 장소까지 인출하는 방식이다.

또 가정 인계 유형은 학부모 요청 시 자원봉사자가 학생을 집 근처 안전한 곳까지 동행하는 시스템이다. 이 경우 학생 안전을 고려해 2인 1조가 원칙이다.

이에 따른 자원봉사자는 전주에 40명, 군산과 익산에 각각 20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4월까지 수요 조사를 거쳐 희망 학교를 선정,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과 대응 투자를 통해 자원봉사자를 모집·배치할 계획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늘봄지킴이 사업은 학생들의 안전한 하교를 돕기 위해 새롭게 시작하는 정책으로, 노인 일자리 기관과 협력해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사업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특히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덜고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교육시설 새 이름 찾아요”

2층 강당·창조나래 시청각실 등 명칭 공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본관 2층 강당, 창조나래(별관) 시청각실, 전주학생교육문화관 공연장의 새로운 명칭을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명칭 공모는 해당 시설의 정체성을 반영하고, 교육적 가치와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공모 기간은 4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이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등 교육 가족과 전북도민이면 누구나 네이버 폼(https://naver.me/IgJKDAKq)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육지원청, 올 학부모합창단 신입회원 26명 선발

전주교육지원청(교육감 김경기)은 2025년도 전주학부모합창단 신규회원 26명을 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전주교육지원청은 2월 17일부터 3월 14일까지 관내 유·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전주학부모합창단 신규회원을 모집했다.

이번 모집에는 초1~고3 자녀를 둔 학부모 총 39명이 지원, 오디션 등을 통해 최종 26명을 선발했다.

이에 남성합창단 31명, 여성합창단 65명으로 단원 구성을 완료했다.

오디션은 목소리 톤과 발성에 따른 파트 조정 및 구성을 위해 진행됐으며, 특히 이번 모집에는 초보자부터 실력있는 신규회원까지 음악을 사랑하는 전주 학부모님들로 구성됐다.

한편, 합창단 남성은 매주 화요일 저녁, 여성은 매주 수요일 오전에 정기 연습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 유레카초청강의에

이충훈 전주MBC 아나운서 초대

우석대학교 교양대학이 마련한 유레카초청강의에 이충훈 전주MBC 아나운서가 초대됐다.

27일 우석대에 따르면 이충훈 아나운서는 이날 문화관 2층 아트홀에서 ‘실패에서 배우는 말하기 기법’을 주제로 재학생과 교직원, 지역 주민 등 300여 명과 소통의 시간을 보냈다.



특강에서 이충훈 아나운서는 말하기의 기본과 소재, 구성, 소통 등 다양한 말하기 기법을 소개하며, 말하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유용한 팁을 제공했다.

특히 말하기에서의 실수와 실패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전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그는 자신의 방송 경험을 바탕으로 말하기에서의 자신감과 효과적 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설명하고, 청중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질문을 유도하는 등 참여를 끌어냈다.

이충훈 아나운서는 “말하기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중요한 도구”라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를 통해 성장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학력향상
도전학교 설명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7일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2025학년도 중·고등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학력향상 도전학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학력향상 도전학교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토대로 학년별·교과별·영역별 성취율을 분석하고, 계획을 수립해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다.

주요 안내 사항은 △2025학년도 학력신장 지원 기본방향 △학력향상 도전학교 도전과제 영역 △학습지원 앱 ‘올라’ 연계 학습코칭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9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운영교를 확정, 오는 4월까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실시한 뒤 학생 수준에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설할 예정이다.

학력향상 도전학교에서는 단원별/주제별 학생의 요구를 반영한 소수정예 맞춤형 지원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어 만족도가 높다.

또한 1인 1학습지원 앱 ‘올라’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데이터를 제공받아 학습멘토, 학습코치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도 개설한다.

학력향상 도전학교는 1회성 행사를 지양하고, 학생들의 지속적인 학습관리에 주안점을 뒀다.

이를 위해 △학습동기 부여 △학습역량 함양 △교과학습 지원 △학습관리 지원 등 다양한 영역의 도전과제를 운영한다.

올해는 특별도전과제도 운영한다. 도내 35개 고등학교에서 특별도전과제 학습관리에 참여하는 학생 2,500여 명에게 간식비를 지원한다. /정은성 기자

국립군산대, 전북자치도 산학연
거버넌스 구축 위한 협약 체결

국립군산대학교는 지난 26일 오전 11시, 본부 대회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내 산업체, 기관(협회체) 등 총 20여개 기관(기업 7개, 기관 16개 등)과 함께 ‘글로벌대학’ 및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에너지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들이 대거 참여해, K-에너지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새만금 지역의 에너지 전환 및 저탄소 기반 구축을 위한 실질적 협력의 장이 마련됐다.

특히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특화 인재 양성을 위한 논의도 활발히 이뤄지며 협약식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군산=이재훈 기자